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수신 관내 사업장 귀하
(경유)

제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당부 서한문 전파

1. 귀 사의 무재해와 안전일터 조성을 기원합니다.
2. '25년 우리지청 관내 사업장에서 유해가스 누출·흡입,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승강기 수리 중 끼임 등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26년에도 2월말 연휴기간 중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 등 산업재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25년 관내 중대재해 유형별 주요 사례]

<끼임>

- 11.25.(화) 영덕군 소재 사업장에서 화물용 승강기 수리·점검 중 하강하는 운반구에 끼여 사망
- 5.23.(금) 경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철판 천공작업 중 칩제거 과정에서 탁상용드릴기 회전부에 팔이 말려 사망
- 4.24.(목) 포항시 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 점검통로 이동 중 크레인과 통로 사이에 끼여 사망
- 3.21.(금) 포항시 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권취기 수리 작업 중 하강하는 설비에 끼여 사망

<유해가스 및 물질 누출·흡입>

- 11.20.(목) 포항시 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집수정 슬러지 청소작업 중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사망(2명)
- 11.5.(수) 포항시 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전기배선을 위해 이동 중 발로 밟은 배관에서 누출된 유해물질을 흡입하여 사망
- 10.25.(토) 경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저수조 내부 측량작업 중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사망(3명)

<부딪힘>

- 11.14.(금) 포항시 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도보로 출근하던 중 이동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
- 10.22.(수) 포항시 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이동 중 후진하는 화물차 바퀴에 깔려 사망
- 9.4.(목) 경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맞음>

- 5.16.(금) 경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진공성형기 금형교체 작업 중 떨어지는 금형에 맞아 사망
- 3.10.(월) 경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가축사료 저장탱크 수리작업 중 점검구로 쏟아지는 사료에 깔려 사망

<추락>

- 3.14.(목) 포항시 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전기로 상부 용융물 제거 중 작업발판에서 떨어져 사망

3.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 강화 및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 강제수사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붙임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서한문 1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근로감독관 권민혁 과장 박세호 지청장 2026. 3. 3. 박해남
협조자
시행 산재예방감독과-701 (2026. 3. 3.) 접수
우 377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22번길 8, 1층 (대잠동) / <http://www.moel.go.kr/pohang>
전화번호 054-271-6836 팩스번호 0503-8803-0536 / alsguu1625@korea.kr / 비공개(6)



고용노동부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에 매진하고 계신 경영책임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청은 안전 일터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사망사고의 원인은 기계·설비의 방호장치 미설치, 수리·정비 작업시 안전 절차 위반 및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망사고 예방의 첫걸음은 무엇이 위험한지 살피는 것입니다.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찾고 스스로 개선하여 사업장에 맞는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에 맞는 필수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등의 기술·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시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곧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안전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년 3월 3일

고용노동부 포함지청장 박 해 남 드림